

무주군, 신속집행 도내 1위

6월말 기준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액 3489억원 중 55.09% 1922억원 집행

무주군이 6월말 기준, 상반기 및 소비투자 부문 신속집행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액 3,489억 원 중 55.09%인 1,922억 원을 집행했으며, 2분기 소비투자 부문은 정부 목표액 576억 원 보다 186억 원을 초과 집행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적은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비위축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모든 부서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에 집중한 결과다. 군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주 1회 부서 자체 점검회의를 비롯해 월 1회 부군수 주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무주군청사 전경

또한 실무자 간 일일 신속집행 업무 협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1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 및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사업 분석을 통한 집행을 제고할 도모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상황 및 집행 전망을 수시로 점검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서 신속집행 추진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이상형 기획실장은 "지역경제의 과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주요 시설사업 집행 상황의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의 수혜가 군민들

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하반기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1분기에도 상반기 및 1분기 소비투자 부문에서 전북 도내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안성면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가져

기초과정 도시재생 역량 키워

무주군은 5일 '안성면 도시재생대학' 6회차 과정을 끝으로 수료식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첫발을 디뎠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기초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필요성 인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안성면 기초과정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주간 안성면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45명이 참여, 도시재생 역량을 키웠다. 내용은 도시재생 개념과 주민주도 성공사례, 갈등관리, 마을조사 및 자원 발굴 및 안성면 내 현안문제 조사 등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은 물론, 외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됐다. 마지막 시간은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각 팀 별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으로의 방향성을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안성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구축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안성면은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장기리 사랑방에서 도시재생이 활황)에 지난해 12월 선정돼 앞으로 지역주민 및 다양한 유관 단체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기반인 지역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유치원·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장수군은 고온다습한 하절기를 맞아 해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의 5년(2017~2021년)간 식

중독 발생은 연평균 282건, 5813명이며, 이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건은 64건, 2593명으로 전체 식중독 발생의 23%를 차지한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위생·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군은 7월 중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부패·변질 식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5일 본격적인 수박 출하기에 앞서 군 관계자, 참여농협 3개소(진안, 백운, 부귀) 및 수박 공선출하회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수박 출하를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고품질 수박 성공 출하 만전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 이하 조합법인)은 5일 본격적인 수박 출하기에 앞서 군 관계자, 참여농협 3개소(진안, 백운, 부귀) 및 수박 공선출하회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수박 출하를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수박 출하에 앞서 수박 수확 시기 및 방법 등 관리 방법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힘들게 노력한 수박 농사가 성황리에 작황을 맞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올해 진안군 수박 공선출하회는 올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그동안 탈퇴했던 농가들까지 대거 가입해 총 9개 조직에 150농가가 참여했다. 그 중 40농가는 올해 신규 유입 농가이며 올해 총 재배면적도 73ha로 전년 43ha 대비 70%가 확대되는 등 진안군

수박 농가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진안군은 오는 9일 하우스 재배 수박을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비가림 터널 재배 수박을 출하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매장(도매시장,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비롯하여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안고원 명품수박을 만나볼 수 있다. 최종진 대표는 "다가오는 장마철과 장마 후 고온기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관리 및 포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약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GAP 인증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올해도 고당도, 고품질의 진안고원 명품수박 출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 실시

무주군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신청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을 비롯해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다. 점검 신청은 지난해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안전진

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다음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군은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물의 위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주민 관심을 높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보건의료원 노르딕 스틱 걷기교실 운영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번암면건강증진형보건의료교육실에서 건강 걷기를 통한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한 '노르딕 스틱 걷기교실'을 운영한다. 노르딕 스틱을 활용한 건강 걷기는 척추를 바르게 하고 자세 교정 효과가 있으며 관절의 부담을 줄여줘 노인 걷기 운동에 효과적이다. 이번 노르딕 스틱 건강 교실은 어른 10명~15명을 대상으로 노르딕 스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바른 걷기 △질병별 운동 처방 및 재활 워킹 △하체근력 강화워킹의 걷기운동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소년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성황리 운영

진안군은 5일 진안제일고 1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인 'Dream Job School'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진로박람회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기 위해 선배들이 들려주는 대학 이야기, 함께 하는 진로토크콘서트, 직업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진로토크콘서트는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로고민, 일상 고민 등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김용연 진로전문가와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가져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직업체험 부스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법률가, 조향사, 미술치료사 등 현직에 있는 전문가 10여 명이 청소년들과 진로와 직업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시간이 됐다.

올해 4번째로 운영된 진로박람회는 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꿈을 펼쳐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